



#무지 관련 속담 따라쓰기

기초를 몰라 세상과 위험을 읽지 못하는 모습, 남의 흐름을 따르는 행동,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시선이 이어집니다.

1 보기

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

3 혼자 쓰기

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

수록 속담 20개 · 이 태그 116개 가운데 관련도 높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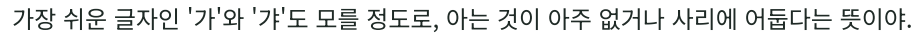
01	가가 뒀다리도 모른다	2쪽	11	엄병덤병하다가 물에 빠졌다	12쪽
02	눈먼 말 워낭 소리 따라간다	3쪽	12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13쪽
03	오리 알에 제 똥 묻은 줄 모른다	4쪽	13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14쪽
04	무식한 도깨비가 부작을 모른다	5쪽	14	소경 장 떠먹기	15쪽
05	기억 자 원 다리도 못 그린다	6쪽	15	바닷가 개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16쪽
06	우물 안 개구리	7쪽	16	제 똥 구린 줄 모른다	17쪽
07	까투리 복한 다녀온 셈이다	8쪽	17	쌍언청이가 외언청이 타령한다	18쪽
08	봉사 단청 구경	9쪽	18	장님 막대질하듯	19쪽
09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10쪽	19	무지각이 상팔자	19쪽
10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11쪽	20	아동판수 육갑 외듯	20쪽



연습 19쪽 ·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
칸이 큰 쪽이 잘 쓴 글씨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무지 모아보기
이 주제 속담 더 보기





가	가	뒋	다	리	도	모	른	다
---	---	---	---	---	---	---	---	---

가	갸	뒗	다	리	도	모	른	다
---	---	---	---	---	---	---	---	---

[illegible]

proverb.wordrow.kr/t/무지



2 / 20

눈먼 말 위낭 소리 따라간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눈	먼	↓	말	↓	위	낭
소	리	↓	따	라	간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눈	먼	↓	말	↓	위	낭
소	리	↓	따	라	간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				



3 / 20

오리 알에 제 똥 묻은 줄 모른다

자기 몸에 묻은 큰 흠이나 단점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만 홍보는 것을 말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오	리		알	에		제		똥
문	은		줄		모	른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오	리		알	에		제		똥
문	은		줄		모	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4 / 20

무식한 도깨비가 부작을 모른다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덤빈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무 식 한 도 깨 비 가
부 작 을 모 른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무 식 한 도 깨 비 가
부 작 을 모 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무 식 한 도 깨 비 가
부 작 을 모 른 다



5 / 20

기억 자 원 다리도 못 그린다

한글의 가장 쉬운 글자인 'ㄱ'자조차 쓸 줄 모를 정도로 아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기	억	자	원	다	리	도
못	그	린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기	억	자	원	다	리	도
못	그	린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6 / 20

우물 안 개구리

자신이 사는 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우 물 안 개 구 리

2 따라 쓰기 옆은 글씨를 덮어 쓰기

우 물 안 개 구 리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7 / 20

까투리 북한 다녀온 셈이다

어떤 곳을 구경하거나 무언가를 경험했지만,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를 때 쓰는 말이야.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까 투 리 북 한

다 녀 온 셈 이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까 투 리 북 한

다 녀 온 셈 이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8 / 20

봉사 단청 구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림을 봐도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어떤 것의 진짜 가치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해요.

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

봉	사		단	청		구	경
---	---	--	---	---	--	---	---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봉	사		단	청		구	경
---	---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	--	--	--	--	--	--	--



9 / 20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뜻해요. 한쪽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소	경	이	↓	코	끼	리
만	지	고	↓	말	하	듯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소	경	이	↓	코	끼	리
만	지	고	↓	말	하	듯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0 / 20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탈 것에 불이 잘 붙는 재료(섞)를 지고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위험을 만들거나
앞뒤 생각 없이 어리석게 행동함을 뜻한다.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1 / 20

엄병덤병하다가 물에 빠졌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두르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결국 큰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엄 병 덤 병 하 다 가

물 에 빠 졌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엄 병 덤 병 하 다 가

물 에 빠 졌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2 / 20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눈	이	아	무	리	밝	아	도
제	코	는	안	보	인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눈	이	아	무	리	밝	아	도
제	코	는	안	보	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3 / 20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제		얼	굴	은		
제	가		못		본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제		얼	굴	은		
제	가		못		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4 / 20

소경 장 떠먹기

어떤 일의 내용이나 원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겉만 보고 대충 짐작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

소	경	장	떠	먹	기
---	---	---	---	---	---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소	경	장	떠	먹	기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	--	--	--	--	--	--	--



15 / 20

바닷가 개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자기가 사는 좁은 세상에만 있어서, 더 크고 무서운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바	닷	가		개	는		호	랑	이
무	서	운		줄		모	른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바	닷	가		개	는		호	랑	이
무	서	운		줄		모	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6 / 20

제 똥 구린 줄 모른다

자신의 잘못이나 좋지 않은 점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제		똥		구	린
줄		모	른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제		똥		구	린
줄		모	른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7 / 20

쌍언청이가 외언청이 타령한다

자기에게 더 큰 단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단점을 흉볼 때 쓰는 말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쌍 언 청 이 가

외 언 청 이 타 령 한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쌍 언 청 이 가

외 언 청 이 타 령 한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8 / 20

장님 막대질하듯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짐작만으로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상황을 말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장	님	↓	막	대	질	하	듯
---	---	---	---	---	---	---	---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장	님	↓	막	대	질	하	듯
---	---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19 / 20

무지각이 상팔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가장 좋은 운명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게 되면 괜히 걱정만 늘어날 때 쓰는 말이지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무	지	각	이	↓	상	팔	자
---	---	---	---	---	---	---	---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무	지	각	이	↓	상	팔	자
---	---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20 / 20

아동판수 육갑 외듯

어려운 내용을 뜻도 모르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모습을 말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아 동 판 수 육 갑 외 듯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아 동 판 수 육 갑 외 듯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

보호자 확인

